

‘광주일고 오타니’ 김성준 “이도류 꿈 위해 미국 갑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와 130만달러에 계약... ‘이도류 프로젝트’에 결정
153km 강속구·투타 뛰어난 ‘5툴 플레이어’...황금사자기 후 미국행

“메이저리그에서 더 큰 선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일고 ‘주장’ 김성준이 미국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이도류’의 꿈을 이어간다. 최근 텍사스와 계약을 맺은 그는 황금사자기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입단식을 갖는다.

올 시즌마운드에서 최고 153km의 구속을 기록한 그는 빠른 발까지 겸비한 5툴 플레이어이기도 하다. 수장초를 거쳐 충장중 시절 특급 타자로 통했던 그는 지난해 청룡기 8강에서 150km의 강속구로 ‘우승후보’ 덕수고를 잡아내면서 이도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다음 야구 무대를 미국으로 정했다. 텍사스가 제시한 계약금은 예상을 뛰어넘는 130만달러로 알려졌다. 텍사스가 그만큼 김성준의 ‘재능’에 높은 점수를 줬다.

텍사스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의 인물이 된 김성준은 “주변에서 축하한다고 가서 열심히 잘하라고 응원 많이 받았다.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택을 하니가 속이 후련하다”며 “텍사스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마음이 정해졌다.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김성준의 고민을 끝낸 제안은 ‘이도류 프로젝트’다.

투타에서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꿈꾸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꿈을 알아준 텍사스는 투타를 모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김성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성준은 “투수로서는 위기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승부하는 게 매력이다. 변화구는 슬라이더가 가장 자신이 있다. 빠른 변화구와 함께 느린 변화구도 던질 수 있다”며 “타자로서는 5툴 플레이어다. 배트 스피드에 자신 있다. 뛰는 것도 학교에서 제일 빨라서 자신 있다. 야구장에서는 성격이 안 좋다. 그만큼 승부욕있게 한다”고 웃었다.

누구나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KBO라는 프로 적응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 무대에 도전하는 만큼 우려의 시선은 있다. LG 스카우트로 활약했던 광주일고 조운채 감독도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걱정도 했었다. 하지만 김성준의 재능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금은 제자의 꿈을 가장 열심히 응원해 주고 있다.

미국 적응이라는 과정도 있고, 이도류로 투타를 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김성준은 ‘기회가 더 많다’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메이저리그를 향해 걸어가겠다는 각오다.

김성준은 “감독님께서 투타 믿어주시고 시켜주셔서 감사하다. 1학년 때부터 몸매에 챙겨주시고, 중요한 순간에 믿고 투타를 맡겨주셨다”며 “부모님

도 처음에는 너무 걱정하셨다. 텍사스와 미팅을 계속하고 믿음을 얻으셨다. 가면 더 한국에서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걱정보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오타니 보면 만화 같다고 생각을 한다(웃음). 다른 선수보다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 전력 분석할 때도 남들보다 한 번 더 보고 공부를 해서 시합에 나간다. 또 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보강하거나 러닝 등을 하면서 보완을 많이 하고 있다”며 “투수로서는 타자로서는 미국에서는 피지컬이 중요하다. 피지컬을 키우면 스피드도 올라가고 파워도 늘어날 것 같아서 가장 신경 쓰고 있다. 타자로서는 컨택 부문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준에 앞서 서재응, 김병현, 최희섭, 강정호가 빅리거로 활약하면서 광주일고는 국내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도 소문난 야구 명문이다. 김성준은 선배들에 이어 모교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다. 우선 13일 열리는 경북고와의 황금사자기 16강전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할 생각이다.

김성준은 “부담을 가지면 못할 것 같아서 신경 안 쓰고 내 야구해야 하겠다”며 “아직 내가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닌데 선배님들과 같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3년 안에 메이저리그 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룬 뒤에는 오타니처럼 50-50도 하고, 월드시리즈 우승도 하고 싶다”고 빛나는 순간을 그렸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행을 확정된 광주일고 ‘이도류’ 김성준이 선배들을 잇는 빅리거를 다짐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방망이 조급함 버리고 불펜 자신감 키워야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에이스·불펜 부진에 하위권 허덕
‘타격 1위’ 롯데·두산과 홈 격돌

‘호랑이 군단’이 안방에서 운명의 승부를 펼친다.

갈림길에 선 KIA 타이거즈가 홈에서 6연전을 맞는다. 주중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하는 KIA는 주말에는 두산 베어스와 대결한다.

‘산 넘어 산’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에는 올 시즌 결승선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지난주 키움히어로즈, SSG 랜더스를 상대로 3승 3패를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너무 좋지 못했다. 키움을 상대로 시즌 첫 스윙을 노렸던 지난 7일 KIA는 충격적인 10-11 역전패를 기록했다. KIA는 이날 8회에만 8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키움에 헌납했다.

SSG전에서도 쓴 패배가 기록됐다.

10일 박찬호가 공·수·주에서 활약하면서 키움전 역전패의 충격을 지우는 승리를 이끌었지만 11일 더블헤더에서 2패만 기록했다.

1차전에서는 KIA 마운드를 굳게 지켰던 ‘평균 자책점 1위’ 제임스 네일이 4이닝 7실점의 패전 투수가 됐다. 잘 던지고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2승에 그쳤던 네일이 무거운 책임감 속에 흔들렸다.

KIA 양현종과 SSG 김광현의 눈길 끄는 마운드 맞대결이 펼쳐진 2차전 승부도 1-5패였다.

이번에도 불펜이 무너졌다. 선두타자 채현우에게 3루타를 허용하면서 시작한 6회, 1-1로 맞선 1사 1-2루에서 양현종이 물러나고 불펜진이 가동됐지만 전상현-최치만-이준영이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6회 5실점과 함께 1-5패가 기록됐다.

불펜진이 타자가 아닌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KIA의 걸음이 무너졌다.

김도영의 개막전 부상으로 시작된 부상 악몽 속 출발이 좋지 못했던 불펜진의 부진도 길어지면서 길어진 선발까지 무너지고 있다. 황동하의 교통사고도 빠 아프다.

외야도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다.

소크라테스와 작별한 외야에 최원준의 부진과 나성범의 부상이 겹쳤다. 1루수에서 외야로 돌아온 이우성의 보이지 않는 실책도 치명타가 되고 있다. 11일 경기 도중에는 박정우가 옆구리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다. 병원 검진 결과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KIA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주말 3연전’이 남은 5월 흐름은 물론 전체적인 시즌 방향을 바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3위에 자리하고 있는 ‘화력의 팀’ 롯데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야 한다.

타자들은 조급함을 버리고 집중력 있게 팀플레이를 해야 하고, 투수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마운드에 올라 기싸움을 해야 한다.

번치도 앞선 실패를 복기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전력을 꾸리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난 시즌 성적과 이름 값은 의미 없는 위기의 시간이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두산의 주중 성적도 KIA에는 관심사다.

두산은 주말 3연전에 앞서 대전을 찾아 한화 이글스를 만난다. 12연승 질주 중인 1위팀 한화와의 승부에서 두산이 어떤 표정으로 광주를 찾는 지도 이번 주 KIA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태극 공사’ 안산 올 첫 국제대회 금메달

현대 월드컵 제2차 대회 단체전

양국 국가대표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올해 첫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산은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푸동의 위안선스포츠펀터에서 열린 ‘2025 현대 월드컵 제2차 대회’ 여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임시현(한국체대), 강채영(현대모비스)과 함께 중국을 세트스코어 6-2(56-53, 57-57, 54-54, 57-52)로 이겼다.

안산은 “지난해 월드컵 시리즈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올해 첫 대회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며 “중국과의 결승전은 강한 바람이 변수였다. 1번 주자로 나서서 바람에 대한 대처법을 공유한 것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전선수촌에서부터 호흡을 맞춘 임시현과 강채영과의 팀워크도 좋았다. 모두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한 만큼 변수를 극복하는 순발력이 뛰어나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을 준다”며 “최고의 선수들과 좋은 결과를 거둔 만큼 분위기를 이어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에서도 금빛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시현은 여자 단체전에 이어 김우진과 출전한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푸동의 위안선스포츠펀터에서 열린 ‘2025 현대 월드컵 제2차 대회’ 여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우승한 안산, 강채영, 임시현. <세계양궁연맹 제공>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도 중국을 6-2(37-35 36-38 39-38 37-36)로 누르고 2관왕에 올랐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는 이기현(대전시체육회)이 임시현을 6-2(28-29 29-28 29-28 29-27)로 따돌리고 생애 첫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진(청주시청)은 혼성전 금메달 포함 3관왕

을 차지했다.

이우석(코오롱), 김재덕(예천군청)과함께 출전한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에 세트스코어 6-0(60-53 57-54 58-56)으로 완승했다. 그는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얻어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왼쪽부터 하경수 대표코치, 고승환(광주시청),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시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 최인해 단장(대한육상연맹 부회장). <대한육상연맹 제공>

광주시청 이재성, 육상 400m 계주 이틀 연속 ‘한국신’

세계선수권 출전은 불발

광주시청 이재성이 한국 육상 400m 계주 한국 신기록을 이틀 연속 갈아치웠다. 기록 행진에도 아쉽게 2025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은 얻지 못했다.

이재성은 11일 중국 광저우 광둥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대회’ 남자부 400m 계주 패자부활전 1조 경기에서 38초51을 합작하며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춘 이재성은 세 번째 주자로 나서 기록을 달성했다.

전날 서민준, 조엘진 그리고 광주시청 동료 고승환과 세운 한국 신기록(38초56)을 0.05초 남겨 하루 만에 갱신한 것이다.

대표팀은 이날 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패자부활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패자부활전에서는 3개 조 1위와 2위 총 6개 국가가 출전권을 가져갔다. 1조 1위는 프랑스(38초31)가, 2위는 가나(38초32)가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달성한 이재성과 고승환은 27일부터 31일까지 구미에서 열리는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김민주, 카자흐스탄 국제유도 우승

광주교통공사 김민주(-78kg급·사진)가 국제 유도연맹(IJF)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 유도대회’에서 우승했다.

김민주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에서 경기 종료 2분 10여 초를 남기고 이즈미마오(일본)를 오른손 업어치기 유효승으로 누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도쿄 그랜드슬램 2024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김민주는 준결승에서 하마다 소리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뒤 아케나 구레나(일본)에게 누르기 절반을 허용했다.

2023년 10월에 열린 ‘오디벨라스 세계선수권



스트에서 열리는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주니어 개인 2023’ 대회에서 유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는 용인대 졸업 후 올해 1월 1일 광주교통공사에 입단했다.

한편 김민주는 오는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